

불법 주정차 '번호판 가리기' 꿀불건

자동차 부품상이 밀집해 있는 광주시 북구 임동 오거리 천변우로의 26일 오전 풍경. 차주(車主)들이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합판으로 막고, 테이프로 붙이고, 타이어를 세워두고, 표지봉으로 가린

채 불법주정차 단속을 피하고 있다. 올 들어 10월 말 현재 광주 시내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는 11만9천9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1천232건보다 116%나 늘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나원침 (7368) 김장동



다들 물어봐... KCC

DS건설(주) KCC건설, 연도, 도매, 대단지

KCC광도, 시스템형호 생산·시공

(주)본드나리 KCC슬리본, 메인도, 대단지

실리콘·방수제·점착제·타이브

광주교대 '전남도교육감 전형' 졸업자들 서울·광주 등 타지역 응시 논란

광주·전남 국제 위장결혼 알선 총책 구속

전남지방경찰청 외사계는 26일 한국으로 입국을 원하는 중국 여성들에게 돈을 받고 한국 남성과 위장 결혼을 알선해 준 광주·전남 지역 국제 위장결혼 알선총책 한모(5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3년부터 한국 남성과 중국 여성 등을 상대로 20여 건의 국제 위장결혼을 알선해주고 중국 여성들로부터 1인당 800만원씩을 받아 갹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한씨는 내국인 중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혼자 사는 남성들에게 접근해 중국 여성과 위장결혼을 해주면 1인당 500만원과 공짜 중국여행을 시켜준다고 속인 뒤 중국 여성 등을 연결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한국 남성들에게 약속한 돈을 전부 주지 않고 2004년 7월 중국으로 출국, 3년 동안 도피생활을 해오다 최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점없는 고교생들 2대 흠쳐 순찰차 들이받고 도주

진도경찰, 6명 검거

이들은 26일 새벽 1시께 김씨 차를 타고 서방 해수욕장에 다시 놀러가던 중 임회면 백동마을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앞을 가로막자 차량으로 들이받아 과 경사에게 부상을 입었다.

차군 등은 고의 추돌 후 10km를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 8월께부터 진도 지역에서 유사한 사건이 4건 더 발생한 점 등으로 미뤄 여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추궁 중이다. /진도=박현영기자 hyppark@

무등산서 40대 등산객 숨져

지난 25일 오전 10시56분께 무등산 봉황대(해발 460m)에서 등산객 정모(49·광주시 동구 용산동)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시간 만에 숨졌다.

경찰은 정씨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전남 의무복무 조건 특혜·장학금 받고도 憲訴 통해 경기도 임용 인정되자 '우르르'

교사 임용 후 전남지역 초등학교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대학 입학시험에서 우대를 받고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장학금까지 받은 광주교육대학교 일부 졸업생들이 최근 전남이 아닌 타지역 임용시험을 치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졸업생들은 지난해 졸업생이 타지역에 응시, 헌법소원을 통해 합격이 되자 타지역에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교육청에서는 교육청과 약속을 파기하고, 양심까지 저버리는 행위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6일 광주교대생들에 따르면 지난 18일 치러진 2008년도 초등 교사임용시험에서 전남 근무를 조건으로 입학해학과 장학금을 받은 소위 '전남도교육감 추천 광주교육대학교 특별전형' 졸업생 212명 중 40여 명이 서울·광주·경기 등 다른 지역에서 시험을 치렀다는 것이다. 광주교대 홈페이지에는 이같은 행위를 비난하는 학생들의 댓글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전남도교육감 추천 광주교육대학교 특별전형은 도교육청이 초등교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광주교대와 협약을 맺어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수능 2개 영역이상에서 5등급 이상의 점수를 받은 도내 고교졸업생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이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으며 도교육감은 이들 중 합격자의 1.5배를 광주교대에 추천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별전형 학생들은 일반전형 학생보다 수능점수가 많게는 10점가량 낮은 경우가 있을 정도로 입학전형에서 우대를 받고 있고, 재학시 도교육청으로부터 매년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받는 대신 최초 임용 후 5년(전남 편입생은 3년)동안 전남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광주교대를 졸업한 전남도교육감 특별전형자 1명이 경기지역에 시험을

치른 뒤 헌법소원을 통해 합격이 되자 올해에는 특별전형자들이 한꺼번에 다른 지역에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교대생 A모(23)씨는 "입학할 때 특례를 받고 들어와 약속을 어기고 다른 지역 시험을 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정된 기간 동안 전남지역에서 의무근무를 해야하는 규정을 알고 입학했음에도 타지역 임용시험을 볼 수 있다면 일반 전형과 교육감 전형을 구분할 이유가 없다"며 특별전형자들의 부모덕분에 분통을 터뜨렸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초등교사 임용시험 접수에서 4명이 광주 등 타지역에 응시한 것은 확인했지만 아직 몇 명이 타시도에 시험을 응시했는지 확실치 않으며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헌법소원을 통해 타지역 응시자가 합격되는 좋지 않은 선례가 생기면서 올해 많은 이탈자가 발생한 것 같다"며 "현재 장학금 지급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다시 환급시키면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 예비교사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사별·에르메스·루이비통 등 해외 명품의 모조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오모(47)씨를 구속하고 오씨의 친형(51)과 여동생(43)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남매는 지난 5월부터 명품과 똑같이 생긴 가방 9천145개(정품가 110억원)를 만든 뒤 해당 상표를 붙여

100억대 '특급 짝퉁' '신의 손' 3남매 달미

동대문과 남대문 상가의 도소매상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구속된 오씨는 주요 명품회사들이 블랙

리스트 1순위에 올려놓은 한국 최고의 짝퉁 기술자로서 다른 업자들이 질투해 고발하는 걸 피하기 위해 친형과 여동생을 각각 재단장과 공장의 책임자로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오씨는 7년 동안 국내 브랜드로 가방공장을 운영하면서 최고 기술자가 됐으나 브랜드 인지도가 없어 가짜업자로 전락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여동생 때린 여중생들에 '주먹질'

○광주 북부경찰은 26일 여동생을 때린 여중생들에게 주먹을 휘두른 광주 모 고교 1년 C(16)군을 붙잡아 조사 중.

○C군은 지난 22일 오후 5시30분께 광주시 북구 한 놀이터에서 자신의 여동생(13·중1)을 폭행하고 있는 같은 학교 K(13)양 등 2명의 짝을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는 것.

○C군은 "친구가 때마침 놀이터를 지나가다 여동생 5명이 동생을 때리고 있는 것을 목격,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보내와 현장에서 쫓아가 화김에 주먹질을 했다"고 진술.

○경찰은 C군의 여동생이 "지난 6개월 동안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고 호소함에 따라 피해 사실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 /이종희기자 golee@kwangju.co.kr

정수영이

1588-7657 / 515-7000

<p>남해/합천/거창/통영</p> <p>299,000</p> <p>749,000</p>	<p>부산/거제/통영</p> <p>299,000</p> <p>749,000</p>	<p>부산/거제/통영</p> <p>299,000</p> <p>749,000</p>	<p>부산/거제/통영</p> <p>299,000</p> <p>749,000</p>
---	--	--	--